

“스펙보다 강한 일경험”... 광주시, 드림청년 선발

공공기관·민간기업·사회복지기관 등 드림터 300여곳서 직무 경험 자기주도형·집중참여형 일경험 운영...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8기 드림청년’ 40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경력 중심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 속에서 광주지역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현장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지역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8월2일~2006년 8월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

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자기주도형 일경험이나 주 40시간씩 3개월간 집중참여형 일경험에 참여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9만여원~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참여 청년에게는 은보딩(적응지원) 교육과 맞춤형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광주시는 앞서 참여사업장 드림터를 모집해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무등기업,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00여곳을 선

정했다. 참여사업장 정보와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1차 면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6일 밤 9시까지 2차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드림만남의 날’ 현장에서 신청 및 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문의는 카카오톡채널 ‘광주청년드림’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단으로 하면 된



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일경험드림은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원하는 지역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최근 독일 뮌헨에서 HD현대삼호, HD현대로보틱스, 노이라 로보틱스가 '조선산업 인숍(In-shop) 4축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2번째부터 HD현대로보틱스 송영훈 솔루션 부문장, 노이라 로보틱스 데이비드 레거 CEO, HD현대삼호 류상훈 자동화혁신센터 담당임원.

HD현대삼호·HD현대로보틱스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독일 노이라로보틱스와 업무협약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와 HD현대로보틱스(대표이사 김완수)가 인간형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인 독일 노이라로보틱스(NEURA Robotics)와 손잡고 조선산업용 융점 자동화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최근 독일 뮌헨에서 HD현대로보틱스, 노이라 로보틱스와 함께 '조선산업 인숍(In-shop) 4축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용 4축 보행 융점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작업 환경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삼호는 협동 로봇, 자동화 장비 등의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며, HD현대로보틱스는 다년간 쌓아온

융점 자동화 데이터를 토대로 경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로봇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노이라 로보틱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4NE-1' 등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한다.

HD현대삼호는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환경에서 인지형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을 입증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삼호 류상훈 상무는 “조선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품질 요건에 적합한 융점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안전하게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골목경제 살린다

하반기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용자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으로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용자받을 수 있다.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

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 +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장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맞춤형 정책 추진의 중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동시장·골목 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원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총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1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수요 확대를 위해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국비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매칭되며,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

광주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116대 보조금 지원

차종별 최대 140만~300만원 지원... 12월3일까지 접수

소상공인·장애인·농업인 등 지방보조금 20% 추가 지원

KS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17기 도입... 충전불편 해소

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추가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한 시민이며, 광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 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산서 제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구매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신고해야 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위반 때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3시간 이상 걸리던 충전 시간이 1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온실가스과 소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6월 전남 물가상승 '2%대' 재진입... 광주는 1.9% 올라

6월 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2일 호남통계청의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다.

올 들어 2.2%~2.3% 등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 5월 1%대로 주저앉았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가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물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로 상승했다. 고등어(17.1%), 돼지고기(5.8%), 갈치(21.1%)가 오른 반면, 사과(-17.8%), 배(-24.7%), 참외(-14.9%)는 내렸다.

공업제품은 1.5% 상승했는데 빵(6.1%), 햄 및 베이컨(13.1%), 커피(11.6%)가 올랐고 휘발유(-2.3%), 수입승용차(-5.6%), 등유(-3.9%)가 하락했다.

전기·가스·수도와 서비스는 각각 1.9%, 2.7% 상승했다.

6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가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1.7%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0.6% 올랐다. 고등어(26.1%), 달걀(18.8%), 마늘(24.3%)은 올랐고 사과(-18.1%), 배(-39.6%), 감(-32.1%)은 내렸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